

“노후산단 구조고도화 ‘10% 제한’ 풀어야”

지역 기업인들, ‘규제개선 광주 현장간담회’서 촉구 “염전 전력요금 비싼 산업용 적용 부당”

“노후한 지역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가 절실합니다.”, “염전의 전력요금이 산업용인데, 이를 농사용으로 바꿔주세요.” 11일 광주김대중센터에서 열린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의 ‘찾아가는 규제개선 현장간담회’에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지역 기업인들의 ‘손톱 밑 가시’가 쏟아져 나왔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한 간담회에는 우범기 광주부시장과 박홍석 광주시장의 회장 등 광주지역 기업인 60여 명

이 참석했다. 한 광주지역 산업단지 관계자는 “노후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장 재건축 등 ‘구조고도화’가 절실한데, 시행가능 면적이 전체면적의 현행 10%로 제한돼 효과적인 사업추진이 어렵다”며 개선을 호소했다. 조성 20년이 지난 분촌산단과 송암산단, 하남산단, 소촌산단 등 5개 단지의 인프라를 개선해 달라는 요구에 추진단은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직결되는 노후

산업단지의 기반인프라 혁신이 불가피한 만큼, 관련부처와의 정책조정에서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전일염생산 관계자는 “염전에서 사용되는 전력이 농수산업용 요금보다 2배 이상 비싼 산업용 요금으로 적용되고 있다”며 “전일염이 표준산업분류에서 ‘광물’로 분류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식품’으로 인정되지 않아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밖에도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대·폐차시 기존 차량의 등록번호를 승계하고 있으나 자동차 번호판은 훼손 정도를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폐기해야 해 자원낭비가 심한 만큼 개선이 필요

하다는 요구와 건설업 등록 뒤 매 3년마다 등록기준에 대한 신고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는 것도 불필요한 규제라는 지적 등 10건의 현장 애로사항이 건의됐다. 추 실장은 “기업의 영업활동과 관련해 불편을 초래하는 현장 애로에 대해서는 이를 전면 재검토해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니면 모두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추진단은 연말까지 전국순회 형태로 16개 지역에서 ‘찾아가는 규제개선 간담회’ 행사를 열고, 기업의 규제 애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소하는 등 현장과의 소통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11월 11일은 가래떡 데이 11월11일 농업인의 날을 맞아 광주자연과학고등학교 조영희 교장과 교직원, 학생회 임원, 한국영농학생연합회 회원 등 50여명은 광주시 북구 문흥지구에서 가래떡 나눠주기 행사를 벌였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3분기 생산·수출·고용·건설 광주 ‘맑음’ 전남 ‘흐림’

통계청, 경제동향

올해 3분기 광주지역 생산과 수출·고용·건설지표는 맑은 반면 전남은 흐린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3분기 호남·제주지역 경제동향’에 따르면 광주지역 광공업생산은 전년동분기 대비 16.1% 증가, 전남동분기 6.6%에서 증가세가 확대됐다. 업종별로 전년동분기 대비 전자부품(43.1%), 자동차(26.8%), 금속

가공(21.0%), 고무 및 플라스틱(7.7%) 등이 증가했다. 전남지역 광공업생산은 전년동분기 대비 5.1% 감소했으며, 전년 동분기 6.2% 감소에서 감소세가 둔화됐다. 수출액 역시 광주가 전년동분기 대비 8.2% 증가했지만, 전남은 2.3% 감소했다. 광주의 수출액은 39억5000만달러로 전년동분기 대비 음식료 및 담배 소비재(-4.5%)는 감소했으나, 원료 및 연료(140.5%), 중화학공업품(8.7%), 경공업품(0.4%)은

증가했다. 전남의 수출액은 104억7000만달러로 중화학 공업품(11.9%), 경공업품(6.6%), 음식료 및 담배 소비재(5.0%)는 증가했지만, 원료 및 연료(-17.8%)는 감소했다. 소비는 광주와 전남이 모두 부진했다. 광주의 대형소매점 판매는 운동오락용품과 음식료품 등은 증가했으나, 신발·가방, 의복, 가전제품의 판매 감소로 전년 동분기 대비 2.2% 감소했다. 전남의 대형소매점 판매는 화장품은 증가한 반면 음식료품, 운동오락용품, 기타상품, 의복 등이 감소해 전년 동분기 대비 12.1% 줄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현대·기아차 자사주 매입

지난 9월 한전부지 매입 이후 주가 급락으로 고전하고 있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각각 4500억원 어치와 2200억원 어치의 자사주 매입을 통해 주가 부양에 나섰다. 현대자동차는 보통주 220만2764주(3668억원)와 기타주 65만2019주(823억원) 등 총 285만4783주(4491억원)를 이달 12일부터 내년 2월11일까지 장내 매수를 통해 취득하기로 했다고 11일 공시했다. 보통주와 기타주 모두 전체 발행주식의 1% 수준이다. /연합뉴스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1963.00 (+4.77)
- ▲ 금리 2.18%(+0.06)
- ▲ 코스닥 545.13 (+5.91)
- ▲ 환율 1091.60원 (+6.60)

박삼구 회장 금호산업 되찾을 길 열렸다

채권단, 워크아웃 2년 연장·지분 공동매각 가결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그룹 지주사인 금호산을 공식적으로 되찾아올 수 있게 됐다. 1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산업은행 등 금호산업 채권단은 금호산에 대해 워크아웃을 2년 더 연장하고, 채권단 출자전환 지분을 공동매각하기로 금호산의 M&A(매각) 추진 안건을 가결했다. 또 매각거래가 종결되는 시점에 금호산의 워크아웃을 조기에 졸업시키기로 했다. 이 같은 사항은 지난달 말 채권단 회의를 통과했으며 이날 최종 확정됐다. 채권단은 앞으로 매각주간사를 선정하고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매도 실사에 나설 계획이다. 실사 뒤 본격적인 매각절차를 진행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매각을 완료할 방침이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앞서 채권단은 연말에 금호산업 워크아웃을 종료시킬 계획이었으나 지분매각을 위한 시간이 부족해 워크아웃을 2016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지분 매각이 결의됐다는 것은 박삼구 회장이 금호산업을 되찾아올 수 있게 됐다는 의미다. 박삼구 회장은 채권단이 보유한 금호산업 주식에 대해 우선 매수권을 소유중이다. 채권단이 출자전환으로 보유한 금호산업 주식은 총 57.6%다. 채권단은 최대 ‘50%+1주’까지 우선 매수권을 보장해줄 예정이다. 박 회장이 원하면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지주사적인 금호산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는 말로, 이는 실질적으로 그룹의 경영권을 되찾아오는 길 이 열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10년후 최고 유망 직업은 가스·에너지 기술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조사

10년 후 전망이 밝은 직업으로 가스·에너지 기술자 및 연구원, 보건위생 및 환경 검사원, 항공기 정비원, 음식 서비스 관련 관리자, 사회복지사 등이 꼽혔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412개 직업의 종사자와 직업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한국의 직업지표 연구’를 통해 10년 후 전망이 밝은 상위 20개 직업을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개발원은 개별 직업의 보상, 일자리수요, 고용안정, 발전 가능성, 근무여건, 직업전문성, 고용평등 등을 각각 조사하

고 가중치를 계산해 종합하는 방법으로 직업지표를 산출했다. 조사 결과, 가스·에너지 기술자 및 연구원은 100점 만점 중 99.34점으로 가장 유망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뒤를 보건위생 및 환경 검사원(99.05점), 항공기 정비원(99.03점), 음식서비스 관련 관리자(96.17점), 사회복지사(95.38점)가 있었다. 생명과학연구원(94.66점), 소방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94.36점), 경영 및 진단 전문가(93.18점), 재활용 처리 및 소각로 조작원(91.54점), 자동조립라인 및 산업용 로봇 조작원(91.35점) 등도 상위 10위권에 포함됐다. /연합뉴스

기아차 전국 18곳 드라이빙센터 구축

기아자동차가 광주를 포함, 전국 18곳에 구축한 드라이빙센터가 전국망을 갖추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고객에게 시승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이 시설은 지난해 6월 서울 강남을 시작으로 부산과 울산, 인천, 대구, 울산 등 영업 거점 10곳과 서울 강서, 수원, 대

전, 광주, 포항 등 정비거점 8곳에 설치됐다. 기아차는 전국적인 드라이빙센터 구축을 통해, 보다 많은 고객들이 기아차의 우수한 성능과 가치를 직접 체험해 보고 실제 차량 구매까지 고려하는 선순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연말연시 모임·피로연·돌 회갑 등

등대바다

(주) 해진수산 (주) 창진수산 전국 유통 직영점!

등대바다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938-2 (062)682-9688 정일영 010-2604-7223

해진수산 전남 완도군 신지면 동고리 (061)552-7223

창진수산 전남 완도군 고교면 내동리 (061)554-4631

대량 저가 판매 전복 연말 선물 Set

예약문의 (062)682-9688 ※300석 완비, 주차장 완비

해원(海園) 정규오 목사 출생 100주년 기념 제 8회 해원기념강좌

모시는 말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섬기시는 교화와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해원(海園) 정규오 목사 출생 100주년을 기념하여 다음과 같이 “해원의 가정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8회 해원기념강좌』를 개최하게 되었사오니, 참석하시어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 다 음 ●

1. 일시·장소: 2014년 11월 12일(수) 10:45~14:00
광신대학교 은혜관 3층 대예배실
2. 순 서: 10:45~11:30 예 배 / 설교: 중경총회장 서기행 목사
해원장학금 수여 / 해원기념사업회장 김경중 목사
11:30~12:20 강 좌 / 해원 정규오 목사의 가정관
(황성일 박사/광신대학교 교수)
12:30~12:50 기념식수
13:00~ 오찬

*오찬과 기념품을 준비하였사오니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2014년 11월 일

해원 기념사업회

회 장 김 정 중 목사
사무총장 공 호 영 목사
총 무 지 덕 성 목사
서 기 맹 연 환 목사

문의전화: 총무 지덕성 목사 019-681-5005
서기 맹연환 목사 010-3645-8024